



음주운전 뺑소니로 최악의 수렁에 빠져들었던 피츠버그 강정호가 29일(한국시간) 신시내티 원정을 통해 MLB 무대에 복귀했다. 대타로 나선 이날 복귀 무대에서 1안타를 친 그는 30일에도 안타 한 개를 추가해 여전한 타격 본능을 뽐냈다. 신시내티(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강정호 복귀 2G 연속 안타 2019년에도 ML에 남을까

음주운전 뺑소니로 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긴 강정호(31·피츠버그)가 메이저리그 연착륙에 성공했다. 검증은 마친 '악마의 재능'을 2019년 다시 꽃피울 수 있을까.

강정호는 29일(한국시간) 신시내티 원정에 맞춰 팀에 합류했다. 2016년 이후 2년만의 복귀. 강정호는 대타로 나선 복귀전과 선발출장한 30일 경기에서 나란히 안타 1개씩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자발급 실패로 1년간 쉬고, 가까스로 복귀한 올해에도 부상을 겪었지만 실력은 그대로였다.

클리프 허들 감독은 복귀 직후부터 안타 행진을 펼친 강정호를 두고 “닐 헨팅턴 단장이 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들 감독의 말처럼 결국 판권은 내년이다. 2015년 피츠버그와 맺은 4+1년 계약의 보장 기간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2019년, 강정호의 거취를 결정할 ‘+1’의 옵션은 구단이 쥐고 있다. 피츠버그가 옵션을 발효한다면 2019년 550만 달러(약 61억원) 연봉을 그에게 지불하면 된다.

물론 구단 입장에서 2년을 통째로 날린 강정호에게 550만 달러를 고스란히 안겨줄 가능성은 낮다. 피츠버그는 25만 달러(약 3억원)의 바이아웃 금액을 안겨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후 싼값에 새 계약을 맺으면 된다. 피츠버그는 비자 발급부터 복귀까지 강정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도의적 차원에서 피츠버그를 외면하기 힘들다. 피츠버그도 3루수 조쉬 해리슨과 유격수 조디 머서가 FA 자격을 얻는 상황에서 강정호를 ‘싼 값에 긁어올 만한 복권’으로 평가할 만하다.

MBC스포츠플러스 송재우 해설위원은 30일 “피츠버그의 이번 콜업은 ‘우리는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호의적 메시지 전달이다. 강정호에게 1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안겨줄 팀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다. 강정호 입장에서든 익숙한 팀에 남아 내야 경쟁이 한결 덜한 상황에서 뛰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최하위 위기 NC, 김태군만 있었더라면…

강민호 떠난 롯데, 포수난에 시달려 NC도 김태군 입대로 첫 최하위 위기 투수리드 등 주전 포수 중요성 방증

세이버메트릭스는 이미 현대야구를 지배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포수의 수비능력만큼은 데이터화에 어려움이 많다. 미국에서는 포수의 플레이밍 능력까지 수치화해 선수평가에 적용하고 있지만 투수리드에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도루 저지 능력은 수치화가 매우 간단하지만 이 역시 투수의 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

포수의 투수리드 능력은 이처럼 계량화로 단순화 할 수 없는 매우 심오한 영역이다. 1군 엔트리에서 신인을 찾아보기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 포수인 이유기도 하다.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는 KBO리그에 큰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켰다. 바로 주전 포수의 가치다.

지난해 롯데는 페넨트레이스에서 3위를 차지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NC에 패했지만 2016년 8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성공적인 시즌이었다. 최근 스토브리그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한 롯데는 2018년 한국시리즈 진출까지 욕심을 냈다. 그러나 주전 포수 강민호(삼성 라이온즈)를 트레이드(FA) 시장에서 뺏기면서 시즌 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혼란에 빠졌다. 강민호의 대체제로 점찍어뒀던 안중열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 대신 기용된 젊은 포수들은 투수의 장점을 살리는 리드를 보여주지 못했다. 플레이밍, 블로킹, 도루저지 능력 모두 10개 팀 중 최하위권이었다.

강민호는 뛰어난 공격 능력을 갖춰 타격이 항상 먼저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공격적인 투수리드, 타석에 있는 타자와 펼치는 현란한 심리전 능력, 정상급 송구 능력을 가진 포수다. 무엇보다 1400경기 이상을



김태군

함께 한 롯데 투수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다. 롯데는 정상을 꿈꿨지만 강민호의 이탈 후유증은 시즌 내내 영향을 미쳤고 결국 가을야구 탈락 위기에 몰려있다.

NC는 올해 처음으로 주전포수 김태군 없는 시즌을 치렀다. 김태군이 입대하면서 시즌 초부터 포수난이 시작됐고 창단 첫

최하위 위기를 맞고 있다. 김태군은 “투수는 예민한 포지션이다. 투구 리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신적인 소신을 갖고 그라운드에서 빼어난 투지를 보여줬다. NC의 젊은 투수들은 김태군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추락하다 시즌 중 정병보를 급히 트레이드로 영입했지만 여전히 빈 자리는 커 보인다.

반면 넥센 히어로즈는 주전 포수 박동원 이 시즌 중 불미스러운 일로 전력에서 완전히 이탈했지만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한 김재현과 주효상이 제 몫을 다하며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타격 능력을 떠나 주전포수가 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올 시즌이 끝나면 두산 베어스 양의지와 SK 와이번스 이재원까지 두 명의 주전포수가 FA 자격을 획득한다. 넥센 김재현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롯데 ‘PS 불씨’ 살린 손아섭의 투혼

KT전 6회 역전 3점포·8회 적시타 롯데, 최근 9승 중 5승이 뒤집기승

손아섭(30·롯데 자이언츠)의 투혼이 만능 승리였다.

롯데는 9월 30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8-7로 승리했다. 선발투수 박세웅이 4.1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음에도 타선이 경기를 뒤집었다. 최근 11경기 9승2패의 상승세. 이날 두산 베어스에 패한 LG 트윈스를 제치고 45일 만에 7위로 올라섰다.

쉽지 않은 승리였다. 2-2로 맞선 5회, 박세웅이 1사 만루 위기를 자초한 채 마운드를 내려갔다. 구원등판한 오현택은 폭투로 1실점한 뒤 윤석민에게 2타점 적시타까지 얻어맞았다. 2-5로 점수 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손아섭의 투혼이 롯데를 깨웠다. 손아섭은 이병규와 민병현의 적시타로 1점차까지 따라붙은 6회 1사 1·2루에서 우월 3점포를 쏘아올렸다. 우측 새끼손가락 인대 손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지만 팀이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을 다했다. 손아섭은 7-5로 앞선 8회에도 달아나는 1타점 적시타를 추가했다.



손아섭

롯데의 최근 9승 중 5승이 역전승이라는 점은 팀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매번 뒤통수에 발목 잡혔던 롯데가 어느새 ‘뒤집기의 명수’로 자리매김했다. 내야수 정훈은 28일 고척 넥센 히어로즈전에 앞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자부했다. 30일 경기에 앞서 최재진에게 이를 전해들은 조원우 감독도 “타자들이 힘을 내주고 있다. 선수들끼리 믿음이 두텁다. 25일 사직 NC 다이노스전에서 7점차를 뒤집는 것이 지금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뒤집기 본능은 가을야구 막자 주인공까지 뒤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 | 최익재 기자

최다 그랜드슬램 이범호 “만루는 실투싸움”

(KIA·역대 정규시즌 17개)

올시즌 1홈런 포함 10타수5안타 “실투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패배”

KIA 타이거즈 이범호(37)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만루의 감자’다. KBO리그 역대 정규시즌 최다 만루홈런(17개·포스트 시즌 포함 18개)의 기록 하나만으로도 이범호의 ‘만루본능’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이범호의 만루 본능은 더욱 도드라진다. “이 정도면 과학”이라는 팬들의 외침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만루 상황은 양날의 검이다. 안타 하나로 대량득점이 가능하지만, 병살타로 흐름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 주자 2·3루 상황에서 고의4구로 1루를 채우고 다음 타자와 승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의 압박감도 엄청나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라면 움츠러들 만한데, 이범호에게는 전혀 그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는다.

‘만루에서 성적이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 이범호가 수 없이 받았을 질문이다. 당장 올 시즌에도 만루에서 1홈런 포함 10타

수5안타(타율 0.500)에 무려 16타점을 쏟아냈고, 11년 전인 2007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로 범위를 넓혀도 타율 0.377(114타수43안타), 15홈런, 146타점의 성적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이범호는 “어떻게든 타점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만루는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코스에 공이 들어올지 생각하고 타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만루 상황에서 상대 배터리의 심리를 읽는 경기까지 올랐을까. 궁금증을 안고 질문을 던지니 ‘만루왕’은 겸손한 답변을 내놓았다. “(만루 상황에서) 상대 배터리는 내가 가진 데이터 등을 생각하며 최대한 어렵게 승부할 것이다”며 “나는 특정 코스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실투 싸움이다. 실투가 들어오면 나는 그만큼 공격하기 편하다. 만약 생각한 코스로 실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가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베테랑의 관록이 느껴진 한마디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